

Division a Vision

‘인간을 위한 느린 공간’

기술은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다. 건축 또한 발전할수록 서비스 기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도시에는 도로 위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트럭과 사람이 혼재하고 있다. 만약에 도로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교통량과 배달 시스템이 모두 지하로 내려 보낸다면 지상의 도로는 여유 차선이 생김

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도로를 두어 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쾌적하게 쓰일 수 있다. 인간은 천천히 걸을수록 좋고, 물류는 빠르게 이동할수록 좋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보내는 것이 지상을 ‘인간을 위한 느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도로



운송차량 전용도로